

#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회개

시편 51:1-19

## 【인도자를 위한 예화】

1904년 영국 웨일스에서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있던 이반 로버츠는 가난한 신학생 시절 한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가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는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목격한 후 그 자리에서 자기 안에 있는 추악한 죄를 깨닫고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이 진정한 회개에서 웨일스 영국 교회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 있던 하워드 존스톤 박사는 1906년 9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들에게 웨일스 부흥 소식을 전했고, 그해 10월 장대현교회에서 이반 로버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길선주 장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결단합니다. 이듬해 1907년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마지막 날, 길선주 장로는 1,500명이 운집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친구가 유언으로 맡긴 돈 200원 중에서 100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둘 숨겨 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고 통곡하는 소리가 다음 날 새벽까지 장대현교회를 뒤덮었습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 한국 교회의 부흥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회개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 보세요.

## 【본문 읽기】 시편 51:1-19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시편에는 일곱 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6, 32, 38, 39, 51, 130, 143편). 그중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1~9절)에서는 자신이 범한 참혹한 죄악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이 씻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두 번째 단락(10~12절)에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구하며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세 번째 단락(13~1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을 씻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드릴 세 가지 서원을 노래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서원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는 것이고(13절), 두 번째 서원은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고 자신의 입을 열어 주를 찬송하고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14~15절).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16~19절).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이렇게 참회하며 서원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본 시편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자를 간절히 구하며,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죄를 온전히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위대한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 의인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참회하며 하나님께 자기 속에 무엇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새롭게 하시길 간구했나요?(10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건고한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여’라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을 부릅니다. 이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사용합니다. 또한 ‘창조하여 주시고’라는 표현에서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능만이 온전히 정한 마음과 영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 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

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렘 31:33)라는 새 언약에 대해 예언했고, 에스겔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겔 36:26)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 적용과 나눔 I

**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무엇을 간구하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심령이 새롭게 됨에 있어서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고 간구합니다(11절). 여기서 ‘쫓아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오물이나 쓰레기, 사체 따위를 멀리 골짜기에 버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범죄 결과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령을 거두지 마시라는 간구를 통해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구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머물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셨는데, 사울의 경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렀지만(삼상 10:10) 그가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삼상 16:14).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심령 변화를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요 14:16)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달라는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 관찰과 묵상 II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나요?(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찢겨진 심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찢겨진 심령’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다름 아닌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이라 설명합니다. 여기서 ‘찢겨지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산산조각이 나다’,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다’라는 의미로, 이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자 했던 모든 죄악으로 인해 완악해진 단단한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범죄와 더불어 자신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강박해진 것을 보며, 이러한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제사도 하나님 앞에 소용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물을 찢기 전에 자신의 마음부터 찢어야 했습니다. 또한 ‘짓밟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상처 입다’, ‘괴롭히다’, ‘무너지다’, ‘부수다’, ‘파괴하다’ 등의 의미로 과거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쳐서 부수어 굴복시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인 제사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철저히 그의 마음을 찢고 부수고 산산조각 내는 진실한 통회와 자복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참된 제사를 결코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신다고 강한 확신으로 고백합니다.

## 적용과 나눔 II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형식적 예배를 넘어 깨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제사 그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사의 형식이 아닌 그 제사에 담긴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삼상 15:22-23).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으로 끝나 버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눅 18:13)라고 기도하는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같이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상하고 깨어져 기뻐할 곳 없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갈급한 심령을 참제사, 참예배로 여기십니다.